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3  
<http://sri.kostat.go.kr> 2023



통계청

통계개발원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여가활동 비교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 주말 여가활동 중 적극적 여가활동 비율이나 문화 예술 관람률이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서 더 높았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차이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 여가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보면, 공연문화시설과 도서관은 수도권이 우세했으나 공공체육시설은 비수도권이 우세했다.
-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의 수준이 비수도권 거주자에 비해 수도권 거주자에서 낮았다.
-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에서 여가만족도 수준이 높았으나 그 차이가 줄었다.

여가 분야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별 여가활동의 격차는 상당한 기간 동안 형성된 시설, 자원, 성향의 차이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글은 우선 여가활동의 분포와 함께 문화예술관람 활동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살피고, 여가활동 여건과 서비스에 대한 인식 결과를 다룬다. 또한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을 분석한 후, 여가만족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분석하였다.

자료는 통계청의 「사회조사」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활동조사」를 주로 분석하고 영화통합전산망과 공연통합전산망의 자료,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수도권과 비수

도권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비수도권에서 도시화 수준이 높은 광역시와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하였다. 자료에서 행정적으로 광역시에 속하나 읍면부에 해당하는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수도권을 광역시와 시군구로 구분하였고 광역시의 읍면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수도권을 광역시와 광역도로 구분하였다.<sup>1)</sup>

## 여가활동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민들 간 여가활동 내용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 「사회조사」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21년도 자료,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 자료, 그리고 10년

1)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의미하지만, '비수도권 광역시'와 '비수도권 시군구'를 정의하는 방식은 자료의 한계로 인해 차이가 있다. 「사회조사」에서 '비수도권 광역시'는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중 거주지가 '동부'에 해당하는 인구만 포함하였으며, '비수도권 시군구'는 경기도를 제외한 8개 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읍면부'에 해당하는 인구를 포함하였다.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비수도권 광역시'는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중 지역규모가 '대도시'인 인구만 포함하였으며, '비수도권 시군구'는 경기도와 인천을 제외한 8개 도 및 5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규모가 '중소도시' 혹은 '읍면지역'인 인구만 포함하였다. 그 외 「공연시장 동향 분석 보고서」와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등에서는 지역규모와 상관없이,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모두 '비수도권 광역시'로, 경기도를 제외한 8개 도는 '비수도권 시군구'로 산출되었다.



전인 2009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사회조사」에서는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이나 앞으로 희망하는 여가활동에 대해 조사하는데, 이 글은 여가활동을 크게 적극적 여가활동과 소극적 여가활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적극적 여가활동은 문화자본에 바탕을 두고 주로 집 밖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문화 예술 관람, 문화 예술 활동, 스포츠 경기 관람, 스포츠 활동, 관광(여행), 취미 자기 개발을 포함하였다. 소극적 여가활동은 미디어 이용이나 외부 활동이 배제된 형태로 집 안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동영상 콘텐츠 시청, 휴식을 포함하였다. 적극적 여가활동이나 소극적 여가활동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여가활동은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표 VII-2〉는 수도권의 해당 여가활동 비율을 기준으로 비수도권의 여가활동 수준을 비율로 표시한 것이다. 주말 여가활동 중 적극적 여가활동의 경우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더 높았고, 비수도권에서는 광역시에서 시군구보다 비율이 높았다. 3개 시점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차이가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향후 희망 여가활동의 경우에도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적극적 여가활동의 희망 비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적극적 여가활동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시설이나 환경, 여건에 따른 영향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2021년 「사회조사」를 활용해 연령대별로 비교해 보면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여가활동

〈표 VII-2〉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여가활동, 2009, 2019, 2021

	(%)			
	주말 여가활동		희망 여가활동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시군구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시군구
2009				
적극적 여가활동	89.6	73.3	101.2	87.7
소극적 여가활동	106.1	100.3	108.7	115.9
2019				
적극적 여가활동	91.9	82.1	96.5	91.1
소극적 여가활동	100.0	103.4	90.4	103.9
2021				
적극적 여가활동	93.1	86.4	95.3	92.5
소극적 여가활동	99.3	101.4	100.0	104.7

주: 1) 통계치는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과 향후 희망하는 여가활동에 대해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복수응답한 결과로 수도권을 100으로 보았을 때 비수도권의 비율을 나타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VII-3〉 연령별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여가활동, 2021

	(%)			
	주말 여가활동		희망 여가활동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시군구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시군구
30대 이하				
적극적 여가활동	93.6	92.3	95.8	96.0
소극적 여가활동	99.0	99.4	102.5	103.5
40~50대				
적극적 여가활동	98.6	91.9	97.2	96.1
소극적 여가활동	98.6	99.8	96.2	95.2
60대 이상				
적극적 여가활동	86.5	78.2	94.5	89.0
소극적 여가활동	99.5	103.3	98.2	106.9

주: 1) 통계치는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과 향후 희망하는 여가활동에 대해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복수응답한 결과로 수도권을 100으로 보았을 때 비수도권의 비율을 나타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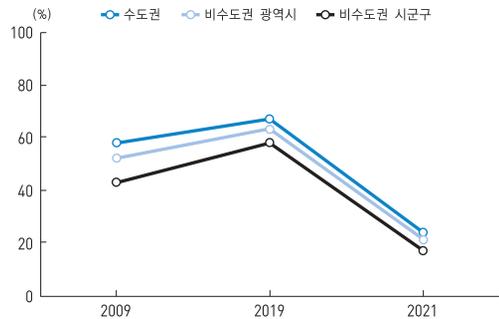
의 권역별 차이가 컸다. 적극적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비수도권 고령층 비율은 수도권 고령층에 비해 낮았다. 반면 소극적 여가활동의 경우, 수도권 고령층보다 비수도권 시군구 고령층의 참여 비율이 더 높았다. 희망 여가활동에서는 연령대 사이의 차이가 덜 두드러졌다(표 VII-3).

### 문화예술관람 활동

권역별 문화예술 관람률을 보면 수도권 관람률 수준이 비수도권에 비해 모든 시점에서 높았으나 차이에는 변화가 있었다. 2009년에 비해 2019년 문화예술 관람률 수준이 높아지면서 권역 간 격차가 줄었으며, 202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문화예술 관람률 수준이 낮아지면서 권역 간 격차는 더욱 줄었다. 전체 문화예술 관람률의 변화와 무관하게 권역 간 차이는 줄어들었다(그림 VII-16).

장르별 관람의 경우 모든 장르에서 비수도권이 수도권 대비 낮게 나타났으나, 장르별 격차의 크기는 차이가 있었다. 관람률이 가장 높은 영화관 관람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간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비수도권 시군구와는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비수도권 내에서 영화관 접근성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것이 관람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 박물관이 미술관에 비해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에 국립 박물관이 꾸준히 공급되는 반면, 미술관은

[그림 VII-16] 권역별 문화예술 관람률, 2009, 2019, 2021



주: 1) 문화예술 관람률은 만 13세 이상 인구(2009년은 만 15세 이상) 중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을 관람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관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연극의 경우 비교적 일관되게 권역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연극을 관람할 수 있는 공연단체 및 시설이 대도시에 집중된 결과이다. 한편 무용은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비율이 다른 장르에 비해 높는데, 이는 무용 관람률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에 권역 간 차이가 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표 VII-4).

연령대별로 보면 비수도권 60대 이상 고령층의 관람률이 수도권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비수도권 내에서도 광역시에 비해 시군구의 고령층 관람률이 낮은 경우가 많았다(표 VII-5).

비관람자까지 모두 포함하여 문화예술관람의 평균 횟수를 산출하면, 2009년 3.71회에서 2019년 5.05회까지 증가했다가 2021년 0.93회로 감소하였다. 장르별 관람 평균 횟수의 수도권 대비 비율을 산출해 본 결과, 모든 장르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낮게 나타났고, 특히 낮은 분

〈표 VII-4〉 권역 및 장르별 문화예술 관람률, 2009, 2019, 2021

(%)

	2009			2019			2021		
	수도권 대비 비율			수도권 대비 비율			수도권 대비 비율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시군구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시군구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시군구
음악회	14.9	80.6	68.9	17.9	86.3	83.0	3.4	82.2	64.2
연극	17.1	59.7	45.7	16.7	64.2	63.8	3.8	60.1	44.4
무용	1.2	85.1	74.4	1.2	89.1	77.0	0.4	78.9	67.5
영화관	50.9	89.8	67.3	61.7	95.2	85.2	18.0	93.5	73.3
박물관	14.7	86.8	88.4	17.3	80.8	81.9	4.9	80.9	73.8
미술관	12.3	74.5	56.9	15.5	73.5	63.5	5.9	63.7	51.3

주: 1) 수도권 통계치는 장르별 관람률을 의미하며, 비수도권 통계치는 각 시기별 수도권의 관람률을 100으로 보았을 때 비수도권의 비율을 나타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VII-5〉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60대 이상 관람률, 2009, 2019, 2021

(%)

	2009		2019		2021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시군구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시군구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시군구
음악회	86.7	63.3	72.3	79.0	64.0	54.2
연극	62.9	42.0	61.5	64.9	36.8	38.9
무용	221.9	141.2	109.4	142.4	26.7	26.4
영화관	66.0	30.0	83.1	63.5	80.5	58.4
박물관	108.5	94.0	64.2	75.8	69.9	58.9
미술관	86.8	43.5	62.2	53.7	64.1	62.0
문화예술 관람	76.3	55.7	82.0	70.0	74.8	60.9

주: 1) 통계치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각 시기별 해당 장르의 수도권 외 관람률을 100으로 보았을 때 비수도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산출한 값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아는 연극이었다. 2021년에 관람 평균 횟수가 감소하였으나 비수도권 시군구의 수도권 대비 비율이 2019년에 비해 대체로 낮아진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권역 간 문화예술 관람률 격차는 감소하였지만, 관람 횟수의 격차는 더욱 커졌다는 점은 접근성이 향상되어도 실제 관람 기회와 관람 활동의 격차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VII-6).

〈표 VII-6〉 권역 및 장르별 문화예술 관람 횟수, 2009, 2019, 2021

(회)

	음악	연극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	전체
2009							
수도권	0.33	0.38	0.04	2.94	0.31	0.29	4.31
비수도권 광역시	0.28	0.20	0.04	2.83	0.29	0.22	3.86
비수도권 시군구	0.23	0.16	0.02	1.78	0.27	0.16	2.62
전체	0.29	0.28	0.04	2.57	0.30	0.24	3.71
2019							
수도권	0.45	0.39	0.04	3.86	0.45	0.43	5.62
비수도권 광역시	0.33	0.22	0.03	3.51	0.35	0.26	4.69
비수도권 시군구	0.33	0.21	0.02	3.22	0.35	0.20	4.34
전체	0.39	0.30	0.03	3.60	0.40	0.33	5.05
2021							
수도권	0.08	0.10	0.02	0.65	0.11	0.14	1.10
비수도권 광역시	0.06	0.03	0.01	0.59	0.08	0.08	0.85
비수도권 시군구	0.05	0.03	0.01	0.48	0.07	0.07	0.71
전체	0.07	0.07	0.01	0.59	0.09	0.10	0.93

주: 1) 비관람자까지 모두 포함한 평균 관람 횟수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연령대별로 비수도권의 문화예술 관람 평균 횟수의 수도권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비수도권 비율이 낮았지만, 특히 60대 이상 비수도권 시군구에서 격차가 컸다(표 VII-7).

〈표 VII-7〉 연령별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문화예술 관람 횟수, 2009, 2019, 2021

		(%)		
		2009	2019	2021
30대	비수도권 광역시	97.7	83.6	76.2
이하	비수도권 시군구	72.4	83.8	71.4
40~	비수도권 광역시	79.1	92.1	83.7
50대	비수도권 시군구	64.2	87.2	69.7
60대	비수도권 광역시	96.4	72.3	83.9
이상	비수도권 시군구	44.7	60.8	62.3

주: 1) 통계치는 비관람자까지 모두 포함한 각 시기별 수도권의 평균 관람 횟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 비수도권의 비율을 나타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이상의 통계는 비관람자까지 포함한 평균 관람 횟수라는 점에서 관람률의 영향이 포함된다. 반면 〈표 VII-8〉은 비관람자를 제외한 순수 관람자들의 평균 관람 횟수이다. 영화를 제외한 다른 장르에서는 관람자 평균 관람 횟수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2021년에 문화예술 관람 전체의 평균

〈표 VII-8〉 문화예술 관람자의 평균 관람 횟수, 2009, 2019, 2021

		(회)						
		음악	연극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	전체
2009		2.3	2.2	3.3	5.7	2.2	2.4	7.1
2019		2.4	2.2	2.9	6.2	2.6	2.5	7.9
2021		2.3	2.3	3.8	3.6	2.2	2.3	4.4

주: 1) 비관람자를 제외한 순수 관람자들의 평균 관람 횟수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관람 횟수가 7.9회에서 4.4회로 낮아진 것은 여러 차례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가 줄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연령대별로 비수도권 문화예술 관람자 평균 관람 횟수의 수도권 대비 비율을 산출한 결과, 30대 이하나 40~50대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80~90%의 비율을 보이는 반면, 60대 이상은 수도권에 비해 평균 횟수가 더 높은 경우도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보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60대 이상 관람자 중 문화예술 관람을 여러 차례 하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표 VII-9).

〈표 VII-9〉 문화예술 관람자의 연령별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평균 관람 횟수, 2009, 2019, 2021

		(%)		
		2009	2019	2021
30대	비수도권 광역시	99.8	83.7	83.4
이하	비수도권 시군구	80.8	86.2	87.4
40~	비수도권 광역시	94.1	95.9	87.0
50대	비수도권 시군구	87.9	95.3	91.5
60대	비수도권 광역시	126.3	88.1	112.1
이상	비수도권 시군구	80.2	86.8	102.2

주: 1) 통계치는 비관람자를 제외한 순수 관람자들의 각 시기별 수도권의 평균 관람 횟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 비수도권의 비율을 나타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이상의 「사회조사」 분석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른 2022년 영화 점유율을 권역별로 산출하였다. 권역별 점유율은 광역 시도별 점유율에 인구수를 고려하여 가중평균을 산출한 결과값이다. 수도권 점유율은 56.0%로 인구 구성에 비해서는 1.11배 높았고, 비수도권 광역시는 1.06배, 비수



도권 시군구는 0.77배로 인구 구성에 비해 낮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시군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표 VII-10).

〈표 VII-10〉 권역별 영화 점유율과 인구 구성, 2022

	영화 점유율 (%)	인구 구성 (%)	인구 구성 대비 점유율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점유율
수도권	56.0	50.5	1.11	
비수도권 광역시	20.7	19.6	1.06	0.95
비수도권 시군구	23.2	30.0	0.77	0.70

주: 1) 인구 구성 대비 점유율은 권역별 인구 비율 대비 영화 점유율을 말함.  
 2)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점유율은 권역별 인구 구성 대비 점유율에 대하여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비율을 말함.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년 기준)」, 2022.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따른 2022년 장르별 권역별 공연 비중은 공연 횟수와 티켓판매 건수 점유율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수도권에서는 거의 모든 장르에서 공연 횟수와 티켓판매 건수의 점유율이 인구 구성에 비해 더 높았다. 비수도권 광역시의 경우, 공연 횟수에서는 인구 구성과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연극과 뮤지컬의 티켓판매 건수는 인구 구성에 비해 낮았다. 비수도권 광역도의 경우에는 인구 구성에 비해 공연 횟수와 티켓판매건수 점유율이 모두 낮았다. 인구 구성 대비 점유율의 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비교하면 수도권과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공연

횟수에 비해 티켓판매 건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다는 사실은 공연에 대한 접근성보다 실제 향유 수준의 차이가 더 큼을 보여준다(표 VII-11).

〈표 VII-11〉 권역별 공연 횟수 및 티켓판매 건수 점유율, 2022

		인구 구성 대비 점유율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점유율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광역도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광역도
연극	공연	1.26	0.92	0.61	0.73	0.48
	티켓	1.69	0.46	0.19	0.27	0.11
뮤지컬	공연	0.99	1.01	1.00	1.02	1.01
	티켓	1.58	0.57	0.31	0.36	0.20
클래식	공연	1.29	1.17	0.40	0.91	0.31
	티켓	1.33	1.02	0.43	0.76	0.32
무용	공연	1.14	1.22	0.61	1.07	0.54
	티켓	1.32	1.03	0.45	0.78	0.34
국악	공연	1.20	1.12	0.58	0.93	0.49
	티켓	1.18	1.22	0.56	1.04	0.47
복합	공연	1.19	1.14	0.58	0.96	0.49
	티켓	1.09	1.31	0.64	1.20	0.58

주: 1) 인구 구성 대비 점유율은 권역별 인구 비율 대비 공연 횟수와 티켓판매 건수 점유율을 말함.  
 2)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점유율은 권역별 인구 구성 대비 점유율에 대하여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비율을 말함.  
 출처: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시장 동향 분석 보고서」, 재구성, 202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년 기준)」, 2022.

## 여가 여건

여가 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가시설에 대한 접근성이다. 생활권 내 여가시설 접근성을 조사한 「국토조사(2021)」 결과를 보면 공연 문화시설 접근성은 평균 6.93km, 공공체육시설

접근성은 평균 3.98km, 도서관 접근성은 평균 4.42km로 나타났다.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은 시설에 따라 기준이 달라 공연문화시설은 10km(차로 20분 거리) 이내 거주 인구 비율, 공공체육시설과 도서관은 750m(도보 이동으로 10분 거리) 이내 거주 인구 비율로 산출하였다. 공연문화시설의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은 평균 96.2%, 공공체육시설은 평균 18.2%, 도서관은 평균 60.1%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여가시설의 평균 거리나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컸다. <표 VII-12>는 여가시설 평균 접근 거리와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을 바탕으로 거주 인구를 고려한 가중평균을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광역도로 구분하여 계산한 후,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비율을 산출한 결과이다. 대체로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서 평균 접근 거리가 더 길었지만, 공공 체육시설은 비수도권 광역시에서 평균 접근 거리가 더 짧게 나타났다.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의 경우 공연문화시설과 도서관은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낮았으나 공공체육시설은 비수도권이 더 높았다.

문화여가생활의 향유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을 보면 2009년 이래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1년에는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많았다(그림 VII-17). 2019년까지 긍정적 인식이 많아진 것은 공공문화여가시설 증가와 문화여가 관련 산업의 성장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2021년 부정적 인식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문화여가생활이 제한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표 VII-12>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생활권 내 여가시설 접근성, 2021

	(%)		
	공연 문화시설	공공 체육시설	도서관
평균 접근 거리			
비수도권 광역시	108.1	92.4	108.4
비수도권 광역도	197.4	162.1	232.1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비수도권 광역시	100.0	121.6	99.2
비수도권 광역도	90.6	118.0	67.5

주: 1) 평균 접근 거리란 격자(500m\*500m) 중심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설까지 도로 이동거리를 말하며, 통계치는 권역별 인구 대비 평균 접근 거리의 평균에 대하여 수도권을 100으로 보았을 때 비수도권의 평균 접근 거리를 비율로 나타낸 것임.  
 2) 공연 문화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이란 공연문화시설 차량이동 20분 거리(10km) 내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을 말하며, 공공체육시설과 도서관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은 각 시설 도보이용 10분 거리(750m) 내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을 말함. 통계치는 권역별 인구 대비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의 평균에 대하여 수도권을 100으로 보았을 때 비수도권의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을 비율로 나타낸 것임.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2021 국토조사」, 202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년 기준)」, 2021.

[그림 VII-17] 문화여가생활 향유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 2009-2021



주: 1) 통계치는 "2년 전과 비교하여 문화·여가 생활 여건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좋아짐'부터 '매우 나빠짐'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2009년, 2019년, 2021년 세 시점을 비교해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문화여가생활 여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하다가 코로나19 이후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09년에는 젊은 연령층에서 긍정적 인식이 높았으나 2021년 코로나19 상황에서 고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표 VII-13).

〈표 VII-13〉 권역 및 연령별 문화여가생활 향유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 2009, 2019,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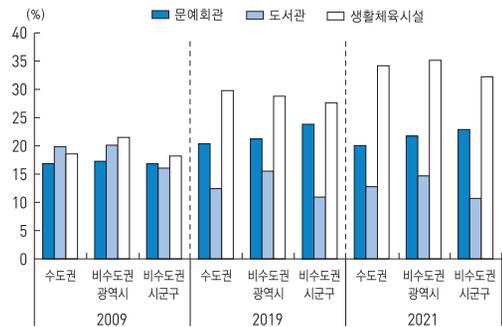
		(점)		
		2009	2019	2021
수도권	30대 이하	3.16	3.43	2.80
	40~50대	3.10	3.41	2.92
	60대 이상	3.08	3.44	2.98
	합계	3.13	3.43	2.90
비수도권	30대 이하	3.13	3.45	2.89
	40~50대	3.06	3.46	2.97
	60대 이상	3.04	3.47	3.03
	합계	3.09	3.46	2.96
광역시	30대 이하	3.19	3.45	2.82
	40~50대	3.13	3.47	2.88
	60대 이상	3.14	3.53	3.06
	합계	3.16	3.48	2.92

주: 1) 통계청은 "2년 전과 비교하여 문화·여가 생활 여건이 어떻게 변화하였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좋아짐'부터 '매우 나빠짐'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에 대한 응답 결과를 통해 국민의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와 취향의 변화 등을 가늠할 수 있다. [그림 VII-18]은 문예회관, 도서관,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응답 결과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한 것이다. 2009년에는 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2019년부터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권역별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비수도권 시군구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VII-18] 권역별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로서 문화여가시설, 2009, 2019,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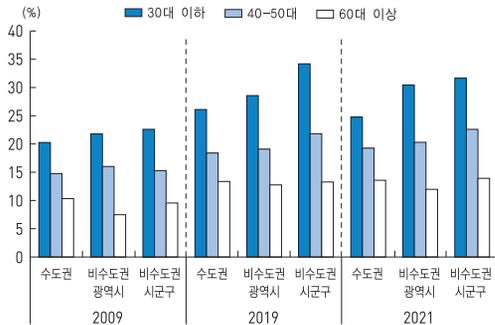


주: 1) 통계청은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에 대해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복수응답한 결과 중 각 문화여가시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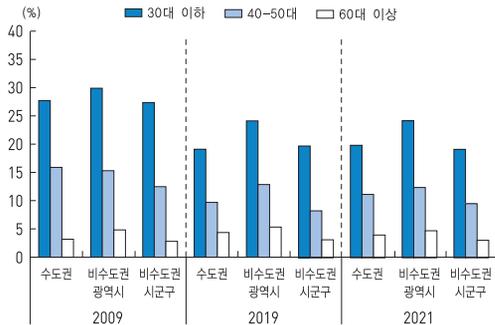
권역과 연령대를 종합적으로 보면, 모든 경우에서 젊은 층일수록 문화여가 시설에 대한 수요가 컸다. 문예회관이나 도서관과 같은 문화시설의 경우 30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 수요가 특히 비수도권 시군구에서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생활체육시설의 경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권역별 연령대별 차이가 많이 줄었다(그림 VII-19).

[그림 VII-19] 권역 및 연령별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로서 문화여가시설, 2009, 2019,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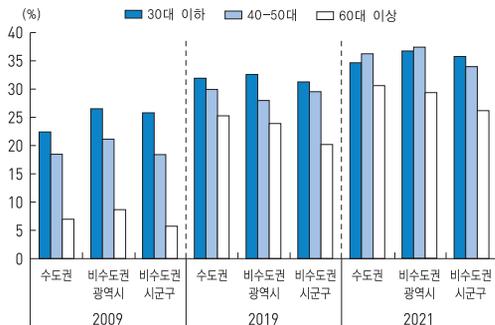
1) 문예회관



2) 도서관



3) 생활체육시설



주: 1) 통계치는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에 대해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복수응답한 결과 중 각 문화여가시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여가시간과 여가비용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를 통해 권역별 여가 시간을 보면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 거주자보다 평일과 휴일 모두 여가시간이 짧았다. 희망하는 여가시간도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 거주자보다 짧게 나타났다(표 VII-14).

〈표 VII-14〉 권역별 여가시간 및 여가 희망시간, 2022

	여가시간		여가 희망시간	
	평일	휴일	평일	휴일
수도권	3.3	5.2	4.0	5.8
비수도권 광역시	4.1	6.0	4.9	6.7
비수도권 시군구	4.0	5.9	4.6	6.5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2022.

여가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매우 부족했다’에서 ‘매우 충분했다’까지 7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충분도가 낮았다. 여가시간을 회식, 업무 관련, 가족 간섭 등의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자유롭지 않다’에서 ‘매우 자유롭다’까지 7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시군구는 같은 수준이었으며, 비수도권 광역시 응답자의 자유도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VII-15).

여가비용을 보면 권역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여가비용이나 희망 여가비용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낮았다. 이는 수도권의 물가가 비싸 여가 활동에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표 VII-16).



〈표 VII-15〉 권역별 여가시간 충분도 및 자유도, 2022

	여가시간 충분도		여가시간 자유도	
	평일	휴일	평일	휴일
수도권	4.6	4.9	4.7	4.8
비수도권 광역시	4.9	5.1	4.9	5.0
비수도권 시군구	4.8	5.0	4.7	4.8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2022

〈표 VII-16〉 권역별 여가비용과 희망 여가비용, 2022

	여가비용	희망 여가비용
수도권	164,643	225,800
비수도권 광역시	198,839	272,568
비수도권 시군구	181,371	242,240
합계	176,102	239,458

주: 1) 여가비용은 여가생활을 위해 한 달 평균 지출한 금액이고, 희망 여가비용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한 달 평균 여가비용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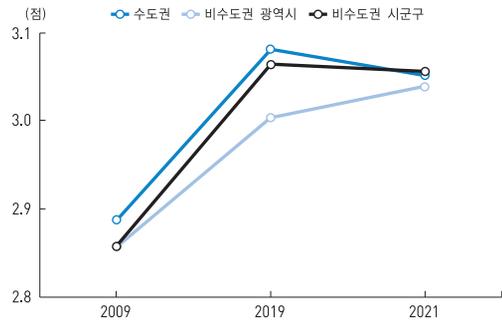
## 여가만족

[그림 VII-20]은 「사회조사」를 활용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여가만족도 추이를 살펴본 결과이다. 과거에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여가만족도 수준이 높았으나 2021년에는 차이가 줄어들어 수렴되었다. 2019년에는 비수도권 시군구에 비해 비수도권 광역시에서 여가만족도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대체로 젊은 층이 나이 많은 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와 권역을 종합적으

로 살펴보면, 2019년 비수도권 광역시에서 30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여가만족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2021년에는 이와 같은 여가만족도 수준의 차이가 감소하였다(표 VII-17).

[그림 VII-20] 권역별 여가만족도, 2009, 2019, 2021



주: 1) 통계치는 "귀하는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점 척도로 응답한 평균값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VII-17〉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여가만족도, 2009, 2019, 2021

		2009	2019	2021
30대 이하	비수도권 광역시	99.1	96.5	100.3
	비수도권 시군구	99.0	99.7	102.2
40~50대	비수도권 광역시	98.2	100.3	100.7
	비수도권 시군구	99.3	101.0	99.4
60대 이상	비수도권 광역시	100.6	95.7	97.8
	비수도권 시군구	99.5	99.1	100.2

주: 1) 통계치는 "귀하는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점 척도로 응답한 평균값에 대해서 수도권을 100으로 보았을 때 비수도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산출한 값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